

성풍속의 사회경제사적 토대 규명

히틀러시대의 禁書1호 「풍속의 역사」 완역돼

민중이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유럽 최초의 과학적 역사서로 평가되는 에두아르트 폭스의 화제작 「풍속의 역사」가 완역됐다.

도서출판 까치는 지난 2년간 「르네상스」 「부르조아의 시대」 「색의 시대」 편을 차례로 펴낸 데 이어, 최근 3부작으로 구성돼 있는 원저에서 각편의 총론부분만을 따로 모은 「풍속과 사회」 편을 상재, 국내 최초로 「풍속의 역사」 완역본 전4권을 내놓았다.

그동안 李泳禧씨 등의 부분번역으로 그 내용이 간헐적으로 소개되다가 이번에 朴鍾萬, 李起雄씨의 공역으로 완역된 「풍속의 역사」는, 특히 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기술된 유럽의 풍속사라는 점에서 이채로운 책. 복장이나 연애, 결혼, 사교생활, 매춘제도는 물론 종교나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풍속이 성의 원리에 지배받고 있고, 그것은 다시 한 사회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규정된다는 것이 이 책의 일관된 내용이다.

이의 증명을 위해 저자 폭스는 성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市井의 글과 그림을 광범하게 인용하고 있는데, 그런 1차자료가 음란저속하다고 해서 히틀러시대의 '금서 1호'로 지목돼 1933년 禁書의 비극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풍속의 역사」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는 기층민중의 눈과 글을 통해 각 시대의 유럽풍속을 규명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토대 및 상부구조를 사회경제사적 시각으로 분석한 탁월한 역사서라는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 유물론적인, 혹은 경제결정주의적인 역사해석을 기저로 하면서도 생생한 설득력을 갖는 '민중생활의 傳記'로 읽힌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만하다.

생생한 설득력 갖는 '민중생활의 傳記'

폭스는 「풍속의 역사」 서문을 통해 「풍속의 역사는 부도덕의 역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도덕적이란 것은 대개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임에 반해 부도덕적인 것은 언제나 '행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성모랄의 역사에 관한 한, 부도덕한 것이 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국역본의 제1권으로 묶여진 「풍속과 사회」에서는 먼저 그런 부도덕의 적극적인 탐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성모랄의 기원과 본질에 관련하여 기술되고 있다. 일부일처제의 성적·경제적 토대 문제, 그리고 사유재산제도



확립에 따른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분화 및 근대시민사회 형성에 따른 지배, 피지배의 문제가 풍속의 형성에 어떤 영향관계를 주고받았는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이어 원저에는 각권의 서론격으로 기술돼 있던 르네상스, 색의 시대, 부르조아시대의 '역사와 본질'을 한데 모아 각각의 시대가 지니는 가장 특징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예컨대, 색의 시대의 '臣民근성', 부르조아시대의 '위선' 등이 당대의 풍속을 형성하는 핵심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번역자들에 의해 각론격으로 재편집된 「르네상스」 「색의 시대」 「부르조아의 시대」는 대개 비슷한 구성을 보인다. 먼저 각각의 시대가 인간의 육체에 대해 품었던 생각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다음, 복장, 연애, 결혼, 매춘, 사교생활 등의 특징적 면모를 풍부한 자료의 예시를 통해 실증하고 있다.

이 중 '육체의 해방'으로 상징되는 르네상스는 이른바 '성숙'이 가장 큰 덕목으로 칭송받던 시대. 따라서, 꽃보다는 오히려 열매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고,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나체의 아름다움이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표현됐다. 은근하다든가 비유적인 것은 환영받지 못한, 왕성한 관능이 이 시대 성풍속의 가장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복장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는 근육이나 어깨, 앞가슴을 돋보이게 하여 정력을 강조했고 여자는 엉덩이나 유방의 크기를 과장했다. 르네상스의 모든 복장은 한결같이 에로티시즘의 외면화에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性愛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일부일처제의 물질적 목적, 곧 상속인의 혈통을 정확히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행해졌다. 르네상스시대의 결혼에서 애정은 결혼의 토대가 아니라 둘러러였다. 이 시대의 많은

인류의 모든 풍속은

성의 원리에 지배받고 있으며,

그것은 다시 한 사회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규정된다는 것이 「풍속의 역사」의

일관된 내용이다.

문학작품 속에서 간통이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그같은 사정을 잘 반영한다. 폭스에 의하면, 결혼제도가 재산의 상속 및 확대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통은 그같은 경제적 이해를 뛰어넘는 건강하고 원초적인 성애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의 강제적인 독신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독신주의는 성적 향락을 포기한다는 의미와는 관계없이 교회에 대해 경제적 의미만을 지닌다는 것이다. 독신제도는 교회나 수도원의 富가 상속을 통해 분배되는 일을 막는 장치라는 점에서, 가톨릭교회가 부를 축적하는 방편이 돼왔다는 것이다.

'세련된 포즈'에 대한 숭배

제3권 「색의 시대」는 18세기 절대주의시대의 유럽풍속사를 다루고 있다.

이 시대는 르네상스적인 성애의 원초적 건강함이 사라지고 대신 색정적인 방탕이 성풍속의 주류를 이룬다. 나체가 찬양되더라도 그것이 아름다와서가 아니라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이르러 성은 심하게 왜곡되고, 그런 왜곡의 표현으로서 '세련된 포즈'에 대한 숭배가 두드러진다.

남녀를 막론하고 긴 가발이 유행했고, 여자의 경우 가슴과 어깨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데콜레'나 치마자락을 10m 이상씩 늘어뜨리는 일이 유행했던 것 등이 그 좋은 예라 할 만하다. 그 결과 이 시대는 이발사와 재단사가 사회의 저명인사로 통했다고 한다.

한편, 세련된 포즈에 대한 그같은 숭배는 연애에서도 '기술'을 보다 중요시하게 만들었다. 폭스에 따르면, 베르테르의 편지에서처럼, 사람들은 연애에서 정액보다도 훨씬 많은 잉크를 '내뿜었다'.

그러나, 색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연애 기술의 증시에서 보는 것 같은 감정의 사치까지를 포함하여, 이 시대가 극도로 사치스러웠다는 점에 있다. 그 단적인 예로 그로테스크

할 정도의 끝없는 사치를 보인 복장을 들 수 있는데, 그런 복장의 사치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을 갖기 위해서 성적인 부패가 거의 공공연하게 저질러졌다. 폭스가 전하는 인용문에 따르면, 돈 많은 정치가 파제는 하룻밤을 같이 자고 싶다는 생각에서 알론 백작부인에게 편지를 보내 "나는 상대에게 보통 100피스톨(프랑스 금화)을 지불합니다만 부인에게는 특별히 200피스톨을 치르려고 합니다"라고 제의했다니, 알론 백작부인은 "나는 당신의 편지처럼 훌륭한 편지를 받아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을 정도다.

계급구별의 요구와 유행

「부르조아의 시대」는 자본주의의 맹아를 띄운 근대시민사회의 형성기를 다루고 있는데, 건강함이나 투쟁, 노동 등이 이 시대의 육체에 대한 이상이었다. 그에 따라 부르조아적 복장은 절대주의시대의 화려한 장식의 사라지고 간소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시대의 복장은 적어도 이윤을 창출하는 쉬지 않는 노동이라는 부르조아계급 특유의 삶을 상징한다는 점에서는 확실적이다.

그러나, 그런 외관상의 평등에도 불구하고 부르조아시대 역시 끊임없는 유행의 변화를 드러낸다. 특히, 부르조아시대의 유행은 경제적으로 더 가진 계급이 덜 가진 계급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되게 하려는 노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더구나 이런 계급구별의 요구에 자본주의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적 특징까지 맞물려 유행의 변화속도는 한층 가속화하게 된다.

한편, 부르조아시대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결혼제도에도 영향을 끼쳐 '재산결혼'이 이 시대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드러나게 하는데, 연애의 상품성이야말로 부르조아시대 성풍속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이런 상품의 거래를 위해 부르조아시대는 신문의 구혼광고가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재산이 있는 자가 지배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결혼이 재산을 획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르조아시대의 풍속 또한 저속하지만 결코 부당한 것은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셈이다.

〈까지 / A5신 / 각권360면 안팎 / 각권 4200원〉

— 강철주 기자